



비켜!
영화관 가야해

베를린·남쪽으로 튀어·7번방의 선물·눈의 여왕·날아라 호빵맨...

뭘 볼까 고민된다 고민돼



설날 극장가 삼차림이 푸짐하다. 이미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베를린'과 '7번방의 선물'에 이어 김윤석 주연의 '남쪽으로 튀어'와 '다이하드' 시리즈가 새롭게 가세한다. 또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3편 개봉한다.

액션·휴먼·코미디·애니메이션... 스크린 풍성

▲베를린

개봉 9일만에 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액션물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남북한 첩보원들의 대결과 배신을 다룬 영화로 순제작비만 100억원이 들어간 대작이다.
'부당거래'의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하정우·한석규·류승범·전지현 등 화려한 캐스팅이 눈길을 끈다. 베를린과 라트비아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했으며 류승완 감독의 오랜 파트너인 정두홍 무술감독이 함께 만들어낸 액션 장면들이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남쪽으로 튀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쿠다 히데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남자 해갑과 5명의 가족이 남도의 작은 섬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흥행배우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윤석이 타이틀롤을 맡아 기대감을 높이는 작품으로 오연수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7번방의 선물

6세 지능으로 멈춰버린 정신지체 장애인 아빠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자 교도소 동료들이 7살 난 딸을 교도소로 몰래 데려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따뜻한 그렸다. 개봉 후 이미 480만명을 동원하며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는 작품이다.
'최종병기 활', '내 아내의 모든 것', '공해, 왕이 된 남자'에 이어 4연타석 흥행 흥판을 날린 류승룡의 바보 연기와 아역 배우 갈소원의 감격찬 연기가 일품이다. 오달수·김정태 등 조연들의 맛깔스런 연기도 인상적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다이하드: 굿데이 투 데이

198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액션 영화의 대명사 '다이하드'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다. 주인공은 뉴욕 경찰 존 맥클라인과 CIA 요원으로 성장한 아들 잭 맥클라인이다.
존 맥클라인 형사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아들이 위협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다. 그를 반겨주는 건 아들이 아닌, 대형 폭탄 테러, 불길한 상황을 직감한 그는 사건의 한 복판으로 뛰어든다.
부르스 윌리스가 건재를 과시하며 제이 코트니와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15세 이상 관람가)

▲파라노만

탐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을 연상시키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3D를 결합한 화려 애니메이션이다.
유령을 보는 노란 주변사람들로부터 미친 아이로 취급 받고 왕따를 당한다. 어느날 노란은 유령으로부터 마녀의 저주를 잠재워 달라는 청을 받고, 그날 밤 좀비들의 습격에 마른은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좀비들의 부활 장면과 자동차 추격 장면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12세 이상관람가)

▲눈의 여왕

안데르센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3D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러시아 작품이다. 눈의 여왕의 저주로 끝없는 겨울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마법 거울을 가진 켈다와 카이 남매가 아이스 원정대와 함께 여왕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 '26년'에 출연했던 배우 장광, '늑대소년'의 박보영, 개그맨 이수근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끝없이 돌아치는 눈보라와 눈의 여왕이 거느리는 얼음으로 된 괴수 등 눈과 얼음의 왕국을 실감나게 표현한 3D 기법이 인상적이다.
(전체 관람가)

▲날아라! 호빵맨 극장판: 구하리! 코코링과 기적의 별

1973년 첫선을 보인 후 400편이 넘는 TV 시리즈와 24편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호빵맨' 시리즈로 국내 관객과는 첫번째 만남이다.
고향인 '신기별'을 구하기 위해 호빵맨을 찾아온 코코링은 우연히 마주친 어린 히어로 크립다를 슈퍼 영웅으로 오해하고 그를 고향으로 데려간다. 한편 세균맨은 이 틈을 타 신기별을 지배할 음모를 꾸미고 호빵맨은 신기별을 구하기 위해 떠난다.
'호빵맨과 숲속의 보물: 노래 부르며 함께 놀아요'가 동시 상영된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謹賀新年

다사다난 했던 한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 찾아 뵙지 못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계사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에 밝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드립니다
복고당 한약방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